

저주 받을 다른 복음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으로 여는 갈라디아서- 시편 55:22, 갈라디아서 1:6-8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 생명력과 에덴의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 가지 문제, 12 가지 문제, 그 안에 있는 오만까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응답을 얻고 해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민수기에는 숫자가 나온다. 그러나 민수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숫자가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숫자가 있다.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14의 마가다라방, 그리고 이 축복을 24, 25, 00(영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가 만물 안에 들어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고 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성공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거기다가 237 나라, 5천 종족, 3, 9, 3 숫자들이 있다. 보좌라는 것은 국가의 통치가 결정되는 최고의 자리이다. 램넌트들의 학업, 달란트, 여러분의 직장이 보좌화되어야 한다. 거기서 모든 축복이 흘러나온다. 3, 9, 3에서 '3'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끝까지 책임지신다. '9'는 3 생명(하나님의 형상, 생기, 축복), 3 초월(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 3 전무후부(나, 교회, 업)이다. 그러면서 3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목회자의 70 현장, 중직자의 70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중직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70 개의 현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부교역자들은 70 나라, 70 제자, 70 지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3 시대이다. 우리 교회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시대를 이끌고 전 세계를 복음화할 센터가 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여러분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 장 8 절에 '저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테마'이다. 이 '아나테마'의 헬라어 뜻은 '하나님의 진노에 바쳐지는 것(파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낯뻐이 되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재창조되어야 한다. 갈라디아교회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깨어지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3 장, 6 장, 11 장의 나중심, 둔중심, 성공중심의 영향을 받은 3 단계와 무속, 점술, 우상과 율법주의, 신비주의와 이단들은 결

국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파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조직들을 절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나 광야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편 55 편 22 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들의 모든 세상의 짐과 죄의 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맡기기로 하면 된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갈라디아란, 특정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 넓은 범위의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전도를 했던 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서도 초창기에 기록한 서신으로 보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서문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1 장 8 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기준, 수준, 표준을 그리스도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과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

1. 첫 번째에서는 다른 복음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다. 갈라디아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 자들은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망할 복음이었다.

(1)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 복종하지 못했던 것이 갈라디아교회의 다른 복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 장 1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교회의 담임목사로 세우셨다.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아멘'으로 붙잡을 때 하나씩 하나씩 깨어져 간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영혼과 생각과 마음,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 믿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지금 적용하자면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이다.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실수를 예방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거둔다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릴 수 있다. 다른 복음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성도 중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2) 갈라디아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할레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할레주의자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2 장 3 절에서 5 절 말씀을 보겠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레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 스스로 제자의 길

에 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효도하기를 원하신다.

(3)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는 율법의 행위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2.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로 통해 말씀해 주신 참 복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사도 바울은 이 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1)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몸을 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겠는가. 여기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없다.

(2)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참 복음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라고 볼 수 있다.

(3)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란 옛 틀과 울무에 묶여 있었던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의 상처, 나의 실수, 나의 주장, 나의 자존심, 나의 열등감, 나의 자랑, 나의 부족함, 나의 배경 등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잡혀서 뛰지를 못하고 전도자가 될 수 없다.

(4) 그리스도의 참 복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도 사과나무이다. 그러나 그 나무는 사과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완전복음의 제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에 감격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나실인의 모습으로 완전해지는 것에 절대목표를 두어야 한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해야 한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7명의 램넛트들이다. 이런 램넛트들이 일어나야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된다.

(5)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참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보겠다.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리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나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천리스트를 말씀해 주고 있다. 율법주의나 종교주의적인 행동은 버려야겠지만 온전하게 실천해야 할 것들이다. 6장 1절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살리기 위해서 각자 그 짐을 지어야 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다. 6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6장 14절에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해야 할 것이다. 안 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알고만 있어도 된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거듭나게 된다.

결론으로 오늘도 갈라디아서로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절대적인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다.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나 방법을 주시지 않으셨다. 여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모든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나와 교회와 70 현장을 위하여 24시간 기도하면서 도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서밋타임 시간에 나와 교회와 현장을 두고 조금만 집중하여도 미래의 응답을 미리 보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러보시기를 바란다.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정리하여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안에서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복음을 통해서 들린 복음과 다른 복음과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이 너무나 시급하오니 우리 참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단에 있는 30만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결론내어서 전 세계 1천만 제자를 하루 속히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